"부처의 지혜, 과학자들 실천해야"

'부다페스트 LA' 연사로 나선 로버트 서먼 교수

티베트 비구계 받은 첫 미국인
일문일답 인터뷰 '불교는 과학'
물질 · 마음 비롯된 '세속' 같아
불교과학 실천할 때 해소 가능

박정현 객원기자

"불교는 과학적 세계관을 갖는다. 나아가 불교는 현대 과학보다 덜 독단적이다."

티베트불교 비구계를 받은 최초의 미국인, 로버트 서먼(Robert AF Thurman · 사진) 컬럼비아대학 교수는 불교와 과학을 이 같이 정의했다. "부처님은 과학자"이며 "부처가 설파한 지혜도 과학"이라는 주장이다.

서먼 교수는 6월 초 열린 '부다페스트 LA'에서 연사로 나섰다. 부다페스트 LA는 3일간 다양한 주제의 강연, 워크숍 등을 선보이는 축제다. 서먼 교수의 주제는 '부처님-시간을 거스른 위대한 의사이자 마음 과학자'였다. 불교 매체 트라이시클(Tricycle)은 당일 서먼 교수의 강연 내용을 중심으로 한 인터뷰 기사를 6월 21일 보도했다.

서먼 교수는 비영리 티베트 하우스 미국(Tibet House US) 공동 창립자이자 미국불교학회(the American Institute of Buddhist Studies)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다음은 로버트 교수와의 일문일답.

Q. 강연에서 부처님을 과학자라고 한 말이 도발적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불교는 '세계 종교'로 분류되지만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이 있다면) 예언자가 아니었다. 부처는 누구도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으며, 힌두교 창조자인 브라흐마도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대신 부처는 사람들이 자신의 본성을 알고, 자신의 실체를 '관계형 존재'로 이해함으로써 스스로를 고통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고 했다. 여기에 부처님 가르침의 요(要)가 있다. 현대 의학의 의사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고통을 치료하면서도 맹목적 믿음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Q.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

이를테면 '사성제'는 아유르베다 요법(고대 힌두교 브라만 경전 '베다'로부터 전승된 인도 전통 의학)을 따른다. 즉 장애 증상에 대한 인식(苦), 원인에 대한 진단(集),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예측(滅), 치료법 이행(道)으로 볼 수 있다. 부처를 의사로 보는 것은 학계에서 실제 연구대상이기도 하다.

Q. 하지만 최근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의학 또는 과학으로 보는 시각에 반박한다. 일부 비평가들은 불교가 '과학'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불교가 성전 · 제단이 있는 종교이며, 이를 따르는 신도들이 있다는 이유로 반박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미국인으로서 티베트불교 비구계를 최초로 받은 서먼 교수. 할리우드 배우인 우마 서먼의 부친이기도 하다. 사진출처=트라이시클

그러나 부처님은 인간들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지혜를 깨우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즉 승단을 세웠다. 그것을 교육하고 연구하는 기관인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영적인 존재다. 하지만 과학은 영적인 것과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과학이 현대 세계 종교'라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Q. 그 말은 마치 불교가 자연과학의 하위 개념이 아니라, '자연과학=과학'으로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개념으로 여기는 것처럼 들린다.

조금 더 공격적이다. 나는 불교가 과학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즉, 부처의 지혜를 과학자들이 실천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들은 물질과학을 연구한다. 그런데 불교는 과학으로 발전한 이 시대 '물질주의'를 '세속주의'로 본다. 부처는 이러한 '물질'과 마음으로부터 근원하는 '세속'을 같은 시각으로 봤다. 그래서 이른바 '불교과학'을 실천함으로써 과학자들은 다른 종류의 책임감을 갖게 되고, 물질주의의 독단을 떨쳐낼 수 있게 될 것이다.

Q. 강연에서 부처님을 '사회적 혁명가'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무슨 뜻인가?

생각해 보라. 자신의 이름, 재산, 가족 모든 것을 포기하고 부처는 거리로 나섰다. 기존에 '가진 것' 대신 '삭발'과 '가사'를 택했다. 그는 강력한 인도의 신분제에 맞서 '평등'을 주장했고, 인도인들에게 '자아'라는 개념을 피력했다. 개인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스스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은 당대 혁명적 사상이었다.

'여성차별' 주제 전시 취소 논란

日 정토진종, 중흥조 저술 포함되자 일방적으로

여성차별과 젠더평등에 대한 의식이 고양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불교계서도 불교 내 성차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 일본불교 거대 종단인 정토진종(淨土眞宗)은 불전에서 언급되는 여성차별에 대한 전시 패널을 연구자 동의 없이 철거, 여성 불교학자들의 대대적인 항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을 6월 18일 일본 '아사히신문'이 집중 조명했다.

사건의 발단은 올해 초, 정토진종의 본산 동본원사(東本願寺)에서 열린 기획전이었다. '경전 속에서 말하는 차별'이라는 주제의 전시회에서 여성 불교학자인 미나모토 쥰코 간사이대학 교수가 제작한 7장의 패널 중 3장이 종단 측 요구로 전시 취소됐다.

미나모토 교수가 제작한 패널은 '경전속의 여성차별'을 주제로, 여성은 성불할 수 없다는 '여인오장(女人五障)' 설을 설명하는 내용이었다. 이 중 종단이 전시를 취소한 3장의 패널에는 정토진종의 중흥조인 렌뇨(蓮如) 스님이 자신의 저술에서 "여성이 성불하기 위해선 남자의 몸을 받아야 한다"고 기술한 내용이 포함됐다.

미나모토 교수는 즉각 항의했으나 동본원사 측은 "종단 측의 교의해석에서 경전속의 여성차별에 관한 정식견해가 나오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이에 미나모토 교수는 "불교의 이름으로 생각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라며 공개 질의서를 제출, 다른 여성 불교학자들과 연대해 지난 5월 하순 불교내의 성차별을 주제로 심포지움을 열었다.

동본원사 측은 정토진종 총무원장 명의로 공개 질의에 회답하면서 "(경전 등의 불전에는) 저술된 시대적 · 사회적 상황이 강하게 반영되기에, 현대인들에겐 수용하기 어려운 표현이 있다"며 전시가 취소된 점에 대해 "(여성차별에 대한) 종단의 정식견해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본산의 이름으로 전시가 진행되는 것은 시기상조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성차별에 대한 항의에 대해서는 "정토진종은 여성의 시점에서 교학을 바라보는 필요성을 중시해, 일찍이 여성 불교학자들을 지원해왔다"며 종단이 성차별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어 정토진종은 "향후의 문제해결을 위해 종단차원서 연구를 이어나가겠다"고 발표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제11차 아시아평화 불교도총회 성료

몽골 울란바토르서… 한국태고종, 북한도 참가

불교의 가르침을 기치로 세계평화와 정의, 인간존엄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제11차 아시아평화 불교도 총회가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됐다. 6월 24일 '부디스트 글로벌도어'와 '더티베트넷'은 성황리에 회향한 총회를 집중 보도했다.

아시아평화 불교도총회(ABCP)는 1988년 UN총회 옵서버로 정식 등록됐으며, 옵서버로 등록된 종교단체 중에서도 보기 드문 불교단체다. 1968년 러시아에서 '평화를 촉진하기 위한 아시아불교도협회'로 발기해 1979년 울란바토르에서 첫 총회가 개최됐다. 당시 참가국은 네팔, 러시아, 몽골, 스리랑카, 티베트였다.

이번 총회의 주제는 '21세기 불교의 유산과 그 가치'로, 몽골불교의 총본산인 간단 텍첸링 사원의 주최 하에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열렸다. 이번 총회는 부처님 가르침을 전파하고, 그 속에서 평화를 이어나기 위한 지혜와 자비의 가치를 재평가하자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제11차 아시아 평화 불교도 총회에 참석한 각국 불교대표들. 사진출처=더티베트넷

총회에는 주최국인 몽골을 비롯해 러시아, 베트남, 대만, 인도, 스리랑카 등 아시아 각국의 불교도 대표들이 참가했다. 한국에서는 태고종이 대표를 보냈으며, 특히 북한의 '조선불교도총연맹'도 대표를 보내 이목을 끌었다.

총회 개막을 기념하는 영상메시지를 보낸 달라이라마는 "첫 총회가 몽골에서 열린 후, 다시금 원래의 장소에서 열린 것을 축하한다. 불교의 가르침은 논리적이고 그 특별함은 연기법에 있다. 이러한 법을 위해 불교도들이 모인 것은 많은 이들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치하했다.

조우인 객원기자

불교도, 도 넘은 이슬람 혐오 조장

스리랑카 일부 불교지도자
전국 송출 TV방송 출연해
근거 없는 이슬람 폄하발언

지난 4월 21일 스리랑카에서 일어난 연쇄 폭탄테러사건 이후, 사건의 배후자로 지목된 이슬람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현지에서 거세지고 있다. 특히 불교계가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6월 23일, 미국에 본부를 둔 '국제평화기구(The Organization for World Peace)'는 스리랑카 현지 상황을 특별 보도했다.

테러의 배후가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의 소행으로 밝혀진 이후, 현재 스리랑카에서는 소수자인 이슬람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다. 테러가 일어난 후 단 몇 주 만에 스리랑카에선 이슬람교도들의 집과 사업장들이 불교 극단주의자들에게 습격을 당하는 등, 국가가 양극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140만 명가량의 인구를 가진 스리랑카에서, 이슬람교도는 약 10%, 불교도는 70%에 달한다.

이러한 불교도들의 이슬람교에 대한 폭력에, 스리랑카의 불교지도자들이 이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제평화기구는 스리랑카 현지 소식통을 인용하며 "스리랑카 내에 가장 영향력을 가진 불교지도자들이 공개적으로 이슬람 혐오발언을 하고, 무슬림들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스리랑카에서 강한 영향력을 가진 출가자협회 '아시기리야 승단(Asigiriya Chapter)'의 지도자 그나나라타나(Gnanarathana) 스님은 최근 스리랑카 전국에 송출되는 TV방송에 출연해 "스리랑카 중부에서 4000명 이상의 여성 불교도들이 사악한 무슬림 의사들에 의해 비밀리에 불임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스님은 이어 "무슬림들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불교도 손님들에게 불임을 유발하는 약품이 들어간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하며 "무슬림들이 운영하는 사업에 불교도들이 보이콧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이와 관련해서 "(무슬림에게 불임수술을 받은) 여성들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는 등의 폭력을 조장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전했다.

스리랑카의 이슬람 단체들은 이 발언을 '증오연설'로 규정, 스리랑카 대통령에게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극단주의적인 논평이 스리랑카의 급진적인 불교민족주의자들에게 급격히 확산된다는 점과 발언자가 존경받는 불교지도자라는 점에서 스리랑카 내 이슬람교 측은 "무고한 무슬림들과 그 생활환경에 대한 추가적인 공격이 임박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또한 이러한 발언에 대해 대통령과 정부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스리랑카 사회 내에서 무슬림들에 대한 증오심을 정상화시키는 한 축이 될 것"이라며 상황의 악화를 막기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을 요구했다.

조우인 객원기자



